



전시·공연·야외 콘서트 ... 문화전당 '문화 축제' 열린다

24~27일 개관 1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펼쳐

예술극장, 20개국 200여명 참여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문화창조원 융복합 콘텐츠 소개 'ACT 페스티벌' 대중음악+현대미술 '클럽 몬스터'·어린이 콘텐츠 박람회도

오는 25일 개관 1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공연, 전시를 소개해 왔다. 대형 복합전시관, 가변형 극장에서 펼쳐진 'ACC카미션' 전시시리즈, '깔깔나무' 어린이 공연은 독특한 연출을 선보이며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또한 'ACC브런치콘서트', 'ACC 월드뮤지페스티벌', 'ACC시네마' 등 프로그램 운영하며 지역민과 소통했다.

문화전당이 '2016 개관 1주년 페스티벌'을 열고 전시, 공연, 야외 콘서트, 플라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24~27일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는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이다. 20개국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페스티벌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국제 작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 전세계 작곡가 17명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또 2010 미국 그래미상 창작음악상을 받은 마이클 도허티 등 위촉 작곡가 31명이 함께해 총 48명 49개 작품을 공연한다.

연주는 '재팬 모던 앙상블', '대만 소커인 챔버 오케스트라', '홍콩 뉴 뮤직 앙상블',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권위있는 단체들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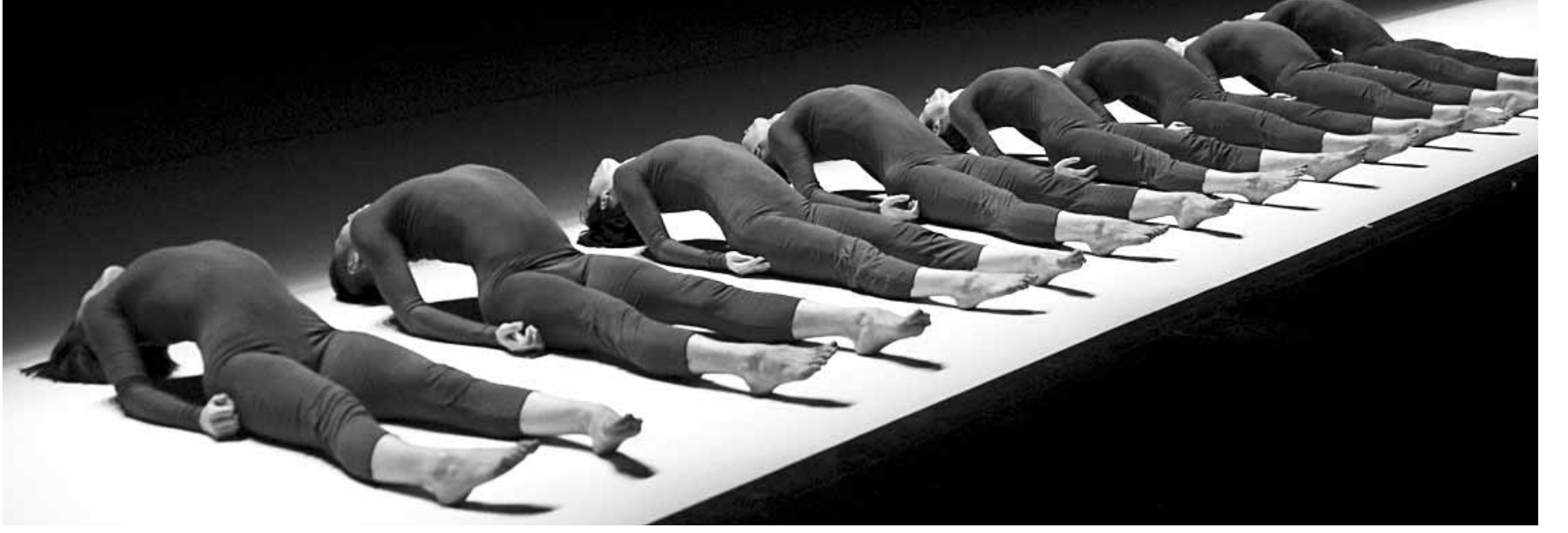
24일 오프닝 콘서트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는 마이클 도허티의 '아메리칸 고딕' 국

내초연 무대다. 창작 관현악 5작품을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김영연)이 연주한다. 창작음악 외에도 한국 현대무용 선구자 홍신자씨의 '네 개의 박', 중국 현대무용단 타오댄스시어터의 '6&8', 관람객이 함께 하는 '참여' 공연과 강연, 워크숍이 진행된다.

올해 문화전당이 창제자한 융복합 콘텐츠를 소개하고 내년 아이템을 논의하는 'ACT(액트) 페스티벌'도 동시에 문화창조원에서 열린다. '헤데로토피아'(익숙한 세계의 다른 이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6개팀이 참여해 7개 퍼포먼스를 펼친다. 만져지는 가상현실 '인터아시아 버스', 일본 료이치 구로가와 작가가 대형 레이저 설치 'Node 5 : 5', 빛·소리로 꿈을 표현한 '엘로스'를 즐길 수 있다. 또 그림자 효과를 이용한 '숨브라', 에너지 변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인텐셔널 파티클', 물체와 몸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필드'를 선보인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제작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도 열린다.

28일~12월1일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이야기 자원을 바탕으로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이 문화정보원 강의실에서 열린다.

다양한 특별 전시 행사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세계 30팀이 참여한 '클럽 몬스터'는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자리다. 임승천 작가는 밥 딜런의 '노킹 온



중국 타오댄스시어터의 '6&8'

■ 2016 ACC 개관1주년 페스티벌

구분	제목	기간	장소
국제교류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	11월28~12월1일	문화정보원 강의실
공연·행사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11월24~27일	예술극장 극장1,극장2
	ACT 페스티벌	11월24~27일	문화창조원 복합 1·2·6관
전시	클럽 몬스터	11월23~17년 2월26일	문화창조원 복합 2관
	Node 5:5(ACT 페스티벌)	11월24~17년 3월31일	문화창조원 복합 1관
	ACC in Flux	11월23~17년 2월26일	문화창조원 복합 6관
	This moment:태국	11월23~17년 2월26일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어린이	전국 어린이콘텐트 박람회	11월 25~12월11일	어린이 문화원
	야외콘서트, 플라마켓 등	11월 24~26일	ACC일원

해브스 도어'를 조각으로, 신기운 작가는 '더 타임즈 데이 아어 체인징'을 홀로그램으로 표현했다. 또 존 레논의 아내 오토 요코가 제작한 설치작품 '천장에 그린 그림'

도 노래 '이매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화전당 개관 전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전 'ACC in Flux'(문화창조원 복합 6관)도 23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열린다. 2002~2013년 건립 연대기, 2014~2016 주요 전시·행사를 만날 수 있다.

같은 기간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태국의 현재를 젊은 작가 11명이 영상으로 소개하는 "This moment : 태국"이 펼쳐진다. 관광, 음식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 불교 정신성 등 진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엘텐체현전'(22일~2017년3월10일)이 운영된다. 웹툰 산업 현황·작품·작가를 소개하고 예비 웹툰작가를 위한 취업세미나, 강연, 토크쇼도 마련된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전국 어린이콘텐트 박람회'가 25일부터 12월11일까지 열린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관련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통해 행복을 이야기하는 '누가

빠르며',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숫 비밀이야', 꼬마게와 아저씨 우정을 소재로 한 '꼬마 게 이야기' 등 공연도 진행된다. 또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참여형 '생각을 모으는 사람', 꼬마 상승 여정을 통해 용기와 협동심을 배우는 '꼬마 장승 가솔기'도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포럼에서는 '놀이, 또 하나의 문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놀이도구 콘텐츠 공동 개발 성과', '박물관 놀이 콘텐츠 적용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밖에 24~27일 야외무대에서는 '피터팬플레스', '위아더 나잇' 등이 참여하는 음악콘서트 무대가 꾸며진다. 또 인터랙티브 작품 전시, '언더그라운드파티', 플라마켓도 즐길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엠마우스복지관 장애인들

'마음찍고 작가되고...' 판화작품전

12월 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엠마우스복지관 장애인들이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12월4일까지 '마음찍고 작가되고 행복하고'를 주제로 판화작품을 전시한다.

복지관은 올해 공익재단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공모지원사업에 '판화작가 교실'이 선정되며 지난 3월부터 매주 한차례 판화수업을 열었다. 강사는 광주국제판화교류회 소속 장원석 작가가 맡았다. 이번 전시에는 발달장애인 28명이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준비한 총 8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꿈과 희망을 만날 수 있다. 문삼세씨가 작업한 '육자네 집'을 비롯해 '사랑하는 마음 초코렛집'(양평은), '바다 이야기'(이수연) 등 일상에서 만난 소소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들이다. 그밖에 박재현씨는 '에스컬레이터'를, 정주영씨는 '달리



양평은 작 '사랑하는 마음 초코렛 집'

는 자동차'를 아기가자기한 색채로 표현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무지개공동체 대표이사 천노연 신부는 "엠마우스 친구들이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수저' 물려주기... '딸에게 건네주는 손때 묻은 책'

김항심 대표 펴내

독후감이 아닌 편지 형식으로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글 모음집이 나왔다.

김항심 인소를 성장연구소 대표가 펴낸 '딸에게 건네주는 손때 묻은 책'(내일을 여는 책)은 국내외 석학들과 유명한 저자들이 남긴 책을 편지라는 형식으로 한편 한편 소개한다. 일반적인 독후감이 아닌 여성학을 전공한 엄마의 경험과 지혜, 감성이 깃들여 있는 편지다. 이른바 책 속의 책, 편지 속의 책 이야기인 셈이다.

책에는 어린 딸이 남성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힘



을 주는 생각들이 담겨 있다. 그뿐 아니라 아직 십대 청소년인 딸에게 성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꾸미거나 에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 담백하게 전하며, 세상에 대해 좌절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이겨나갈 용기와 지혜를 가지라고 강조한다.

'엄마의 책읽기 레시피'라는 부제만 보면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내용들은 중고생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청소년을 둔 젊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꾸며져 있다. 이와 더불어 책에는 책을 고르는 법, 읽는 법, 읽고 정리하는 법 등 책읽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스킬'도 담겨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아이에게 물려줄 금수저는 없어도 책수저를 물려준다면, 책을 기둥 삼아 새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구나 싶어 내가 외려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저자는 '함께성장연구원' 평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엄마의 유쾌한 교육혁명'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m²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